

아이뉴스24

중국, 기업부채 '사상 최고'...한국 수출도 영향 대비해야

기사입력 2021-05-23 12:01

우리나라도 중국 수출에 영향 받을 수 있어



중국 국기 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쓰는 행인의 모습. [사진=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적극적 부양책으로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6년 157.6%에서 2019년 151.9%로 지난해 162.3%로 늘어났다.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유기업 부채 및 레버리지 규모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편이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당국 대출 지원이 늘면서 민간 소기업 부채도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그간 부동산 관련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기업이 여타 부문보다 부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익성은 낮았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소지도 따른다.

또 지방정부용자기구(LGFV)의 취약성 부채도 지방경제 개발 및 활성화 과정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GFV는 지방정부 공여자산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국유기업이다. 이들 LGFV는 서남부지역 등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부각 되면서 성장이 제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중국 당국의 유동성 지원으로 부채가 늘면서 한계기업 정리도 지연된단 사실도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주도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기업부실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등 구조조정 노력을 재개하는 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중국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관계자는 "주요 기관들은 정부의 재정 여력 및 금융시스템 통제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된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기업 투자활동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밋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1&aid=0000599977>
